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아우르는 농업 달성

나주시, 내달 8일 '2020 나주농업 비전' 선포식

'농어업회의소' 창립 1주년 맞아...500여명 참석

농어촌·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6250억 투입

나주시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첫 설립한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창립 1주년을 맞아 '2020 나주농업 비전'을 선포한다. 시는 26일 "어려워진 농촌경제 극

복과 농업인에게 위기가 곧 기회라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다음달 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다목적 체육관에서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농업기관단체장, 회원 농업인 등 500명의 농

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소 창립 1주년에 '2020 나주농업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선포식에서 생산~가공 및 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농업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밝힐 예정이다.

제3차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여섯 가지 추진전략은 친환경 농업 육성, 농업 생산비 절감, 고소득 중심 농업 육성, 유통체계 개선, 식품가공

산업 육성, 인력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2017년까지 6대 전략 25개 분야 249개 단위사업에 매년 1250억원씩 모두 6250억원 을 투입할 예정이다.

나주 농업 비전은 지금까지 행정중심 계획에서 탈피해 지난해 창립한 농어업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합치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다음달 8일 행사는 제1부 나주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과 제1부 농어업회의소 창립 1주년 기념식, 제2부 '2020 나주농업 비전' 선포와 나주시·농어업회의소 간 MOU(업무협약) 체결식 등의 순으로 열린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이 주인 되는 농정 실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농정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행정과 회의소 간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장흥군-中 흑룡강성 관광 교류사업 추진

내달 '힐링투어' 운영

장흥군이 중국 흑룡강성과 폭넓은 관광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장흥군은 중국 흑룡강성 아성구와 관광·경제 교류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힐링투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5월부터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양측의 대표주체인 장흥 물축제와 흑룡강성의 빙등 및 빙설축제를 접목하고 7월 물축제 기간에 아성구 관계자를 초청해 자매결연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또 3억3000만원을 들여 숙박·의료·음식 등 중국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이날 장흥군청

에서 열린 박종영 전남지사와의 '군민과의 대화'에서 중국 관광객 단체 식사를 원형테이블 구입과 중국 현지 홍보비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도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전남 유치에 중국 심양, 천진, 하얼빈과 무안공항을 잇는 정기 전세기를 유치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이날 군민과의 대화에서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국도 23호선 탐진강변 도로 확장사업, 한우 유전자 연구센터 유치,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장흥=김필수기자 bungy@ /장흥=김필수기자·중부취재본부장

부랑 시설 '재능 기부'

한전 담양지사 '행복음악회'

한국전력 담양지사(지사장 장봉모)는 최근 담양군 월산면 사회부랑인시설인 기쁨원을 찾아 음악을 통한 재능을 기부하는 '행복한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복한 음악회'는 음악을 취미로 가진 한전 광주·전남 지역본부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전력KJ밴드 회원들에 의해 마련됐다.

KJ밴드의 회장인 장봉모 지사장의 색소폰 연주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에서 회원들은 그동안 다져온 연주와 노래 실력을 맘껏 펼치며, 원생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함께 참석한 한전 담양지사 사회봉사단은 미리 준비한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장흥 함초 가공공장 준공

26일 오후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에서 HACCP 및 GMP 시설을 갖춘 (주)에이치씨바이오텍 함초 가공 공장 준공식이 이명률 장흥군수 등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991㎡ 대지에 1173㎡ 규모로 설립된 함초가공공장은 오는 2013년까지 100t의 함초가공식품(7억원)을 생산하게 된다. (장흥군 제공)

장성 아카데미하우스 올해의 '독서 저축왕' 선발

장성군은 26일 "다양한 서비스로 주민 독서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장성 아카데미하우스가 올해의 '독서저축왕'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독서저축왕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에게 독서통장을 발급해 일정 기간 동안 독서기록을 기록, 가장 많은 누적점수를 기록한 다독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 동안의 기록을 집계, 누적점수가 가장 많은 개인 6명(초등부 3명, 일반부 3명)과 가족 2팀을 독서저축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독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대출도서 1권당 2점을 부여하고 대출기간이 지난 후(연체)반납도서 일수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한다.

또 100점 단위로 축하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다. /장성=김영호기자 yongho@

새 얼굴

"다문화가정 법률 서비스 주력"

문 방 진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주민 소통의 기회가 넓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장흥지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5일 취임한 문방진(45)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은 "장흥지원 규모는 전국 가장 법원이지만 배심원제 전국 최초 시행을 거울삼아 대법원의 시범모델 역할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문 지원장은 날로 늘어나는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언어와 문화장벽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가정법원(결

임) 법률 서비스에도 역점을 두겠다 "고 밝혔다.

장흥 출신 인문 지원장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36회(연수원 26기)에 합격, 지난 1997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을 시작으로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을 거쳤다.

/장흥=김필수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주 택시 요금 내달 27.3% 인상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전주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6일부터 기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27.3% 인상된다.

전주시는 26일 "전북도가 이달 중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중형택시 운임과 요금 요율을 4년 만에 이같이 올리기로 해 이를 내달 6일 자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현행 2200원(2km)에서 2800원으로 오른다. 시간과 거리 요금도 각각 100원당 36초에서 35초로, 150m에서 148m로 짧아진다.

전주에 등록된 택시는 모두 중형인데다 시간과 거리 요금까지 인상돼 실제 체감 인상은 더욱 커 시민부담이 예상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순창군, 올해도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2년이상 거주 15가구

항공료 등 400만원씩

순창군이 낮은 이국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에게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 2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15세대로, 이들에게는 1가정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왕복항공료 실비전액과 현지교통비 및 방문선물구입비가 지원된다.

군은 지난해 14일부터 31일까지 모국방문 대상자 접수를 받아 신청한 40세대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결혼 기간과 모국방문 경험, 생활정도, 자녀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21일 15세대를 최종 확정했다.



순창군은 낮은 이국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에게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순창군 제공)

신청자 중에는 20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도 많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년 넘게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대상자도 다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가정은 결혼이주여성, 한국인배우자, 자녀들과 동반할 때 모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다음달

초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방문일정 등을 확정한다. 지난해에는 순창군과 유관기관을 통해 17세대가 모국을 방문한 바 있다.

필리핀을 방문한 하이다(여·41)씨는 "모처럼의 가족여행과 자녀를 크는 모습을 친정 부모, 친척들에게 보

여줄 수 있어 매우 좋았고, 순창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군 관계자는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들에게 활력을 주고, 진정한 군민으로 융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홍물 유출수점 철거

군산시는 26일부터 지난 2002년 15명이 희생된 군산시 개복동 유출수점 화재가 발생한 건물 2층에 대한 철거에 착수했다. 시는 사고 후 12년째 홍물스럽게 방치된 이 건물을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군산 새만금 비즈니스센터 장기 전략 제시

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주변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방안도

군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문동신 군산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 황희곤 한국컨벤션학회 회장, 정인환 (주)코엑스 창원컨벤션사업단장, 시의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본계획과 함께 새만금군산 산업전시장, 베스트웨스트 호텔 등 주변시설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전략 및 장기적인 비전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국가경제연구원은 이날 지역 특성을 활용한 자체행사 개발과 근대 문화유산, 고군산군도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MICE협의체와 컨벤션뷰로의 설립도 제안했다.

군산시는 연면적 7492㎡에 지상 3층 규모로 각종 전시회나 산업박람회, 국제회의와 세미나 개최가 가능한 2000석의 컨벤션홀, 회의실, 그리고 기업지원시설을 갖춘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이다. /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부안군, 일자리 상담 100여건 성사

부안군은 26일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2013년도 상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100여개의 고용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구인·구직자들에게 397건의 일자리 상담이 진행됐으며, 100여개의 취업알선이 성사됐다.

특히 대도시 위주를 탈피해 지방기

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자지 않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박람회에는 참프레를 비롯한 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과 대명리조트, NH보훈비산수련원 등 20여 개 지역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남원시, 주민 현안 청취 '이동시장실' 운영

남원시는 시민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생활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이동시장실을 올해 보절면 사무소와 보절면 사촌마을에서 시작했다.

이동시장실은 이한주 남원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이동시장실을 통해 시장이 직접 원거리 거주주민이나 소외·배려계

층을 찾아가 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현안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시장은 보절면 이동시장실에서 "오디, 상추, 오미자 등을 전락자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관로적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다 잘사는 보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군산시, 민원 신속 처리 인터넷 전화기 670대 보급

군산시는 민원 전화의 신속한 연결과 해결을 위해 올해 사업소, 읍면동, 소형사업장 80곳에 인터넷 전화기 670대를 보급한다.

이는 총사업비 9억4700만원이 투입되는 '전직원 1인 1전화기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해 인터넷 전화 교환기 등 주요 시스템과 분청

에 인터넷전화기 1030대를 우선 보급했다.

전 직원 1인 1전화기 보급에 따른 군산시 행정전화번호 체계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면 변경돼 직원 개인별 전화번호가 각각 부여될 예정이다. /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취약계층 아토피 환자 치료비 지원

고창군은 의료 취약계층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피부과,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타시도 포함)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로 도시근로자가구 매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환자가 해당된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비용은 연간 1인당 48만원(입원 치료일 경우는 연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횟수는 보건소 등록 최초 지원 후 최대 5년 한도 내이며, 지원 항목은 법정본인부담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보습제)가 해당된다.